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설화의 국어교육적 함의 언어 본질적 주제 찾기와 재정전화

The Korean Educational Implication of the Narrative Tale Donkey Eared King

저자 (Authors)	이은규 Lee, Eun-kyu
출처 (Source)	국어교육연구 55 , 2014.06, 233-264(32 pages) The Journal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55 , 2014.06, 233-264(32 pages)
발행처 (Publisher)	국어교육학회 Associ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53644
APA Style	이은규 (2014).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설화의 국어교육적 함의. 국어교육연구, 55, 233-26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16 11:3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설화의 국어교육적 함의*

- 언어 본질적 주제 찾기와 재정전화 -

이은규**

< 차례 >

- I. 들머리
- II. 텍스트 변형과 정전화
- III. 텍스트 분석
- IV. 재정전화와 지도 방향
- V. 마무리

I. 들머리

읽기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한 부면의 하나가 읽을 글감의 선정임에는 틀림없다. 왜냐하면 읽기가 “독자가 텍스트를 통해 필자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박수자 1994:144)”이라면,¹⁾ 읽기 행위는 우선적으로 텍스트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제 중심 읽기에서는 ‘어떤

* 이 논문은 2011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물론 이 정의는 ‘텍스트를 통해’보다 ‘필자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에 방점이 놓인다. 그렇더라도 읽기는, 그것이 문자 언어이든 그 밖의 것이든 간에 텍스트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은 변함없다.

글'을 통해서 '무엇'을 읽힐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글감의 선정은 곧바로 '읽을/읽힐 주제'와 연관되고, 선정된 글감은 교과서에 정전화됨으로써²⁾ 읽기 교육의 제재가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전화된 글의 내용이 내포하는 가치는 보편성을 획득하는 단계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글감의 선정은 중요하다.

이 글의 분석 대상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설화(이하, '이 설화'라 함.)³⁾는 5, 6차 교육과정기 초등학교 2학년 읽기 교과서에 글감으로 잠시 정전화되었다가 그 이후에는 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 설화는 현대에도 계승되어 끊임없이 다시쓰여지고 있으며,⁴⁾ '언어적 표현 욕구', '용기', '지혜' 등을 나타내는 설화로 꾸준히 읽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설화 텍스트는 문학 교육을 위한 자료로만 다루기 쉽다. 이 글에서는 '한 편의 글에서 무엇을 읽을 것인가?'라는 조금은 거시적인 관점에서⁵⁾ 이 설화에 접근하고자 한다. 필자가 이 텍스트에 주목한 것은, 이 설화가 인류 보편적 텍스트이고, 동시에 의사소통이나 지배 이

- 2) 이 글에서는 '교과서에 실려서 읽히고 학습되는 과정'이라는 뜻으로 '정전화'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이 글이 정전화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아니므로 박용찬(2005:51)의 '모범적이며 보편적인 가치를 지녔다고 인정받는 교재의 목록'이라는 정의에 기댄 것이다. 정전(正典, Canon)과 정전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박용찬(2005:51-57)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아울러 이테올로 기적 측면에서 국어 교과서를 분석한 차혜영(2005)나 강진호 외(2007) 등도 이 설화의 정전화 과정을 살피는 데에 참조된다.
- 3) 『삼국유사』의 것과 교과서에 실렸던 변이형을 통칭한다. 다만 둘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삼국유사』의 것을 '근원 설화'로 지칭한다.
- 4) 이 설화가 현대 문학의 여러 장르에 어떻게 계승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치열(2005:302-304)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시로는 서정주의 '산수유꽃나무에 말한 비밀', 소설로는 이청준의 '소문의 벽', 현길언의 '대숲에 바람이 불면' 등이 있다.
- 5) 이 글은 '주제 중심 읽기'의 입장을 취한다. 굳이 구성주의식으로 본다면, 신명선(2002:235)에서 분류하고 있는 '개인의 인지적 작용을 중시하는 인지적 구성주의(cognitive constructivism)'와 '사회 문화적 작용을 중시하는 사회 문화적 구성주의(sociocultural constructivism)' 중 후자의 관점에서 서 있다.

데올로기 문제와 같은 언어 본질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곧 언어가 단순한 의사 전달의 도구만이 아니라, 인간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인간의 삶을 지배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하기의 본질적 의미와 실제 삶에서의 속성을 잘 드러낸다. 이 설화가 전 세계에 다양한 변종을 가지는 것도, 그만큼 ‘말하기’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문제 삼으면서 ‘사람과 말의 관계’에 대해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설화가 읽기 제재로서 제 구실을 하려면, 이러한 언어 본질적 주제도 마땅히 ‘읽혀야’ 한다고 본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이 설화의 재정전화를 말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이 설화의 개작과 정전화 과정의 문제점을 따져보고, 언어 본질적 측면에서 텍스트를 분석하여 말하기와 관련된 주제를 찾아낸다.⁶⁾ 그런 다음 현행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살펴본 뒤에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해 보는 과정을 거친다.

그 동안 이 설화를 대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주로 문학 교육적 접근이 대부분이었다. 그 주요 논의는 대략 다음과 같다. 최운식·김기창(1998/1988)에서는 이 설화의 전승 양상을 살핀 후에 설화의 구조와 의미 그리고 교육적 의의를 제시하고 교과서 수록 설화의 개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백영후(1992)에서도 이 설화의 구조와 의미 분석을 바탕으로 교과서 수록과 개작의 문제점을 비판한 뒤에 실제 수업 시의 지도 방안을 모색하였다. 조희웅(1994)과 김기

6) 이 과정에서는 언어비평적 관점을 참조하기로 한다. ‘언어비평’은 이은규(2011)에서 시론적으로 제기된 것인데, 언어학의 분류인 랑그에 대한 탐색과는 별도로, parole의 특성에 천착하여, 실제 삶에서 우리가 부려쓰는 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국어교육의 장에 언어비평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은규(2011:74-77)에서는 언어비평의 한 예로 이 설화를 들고 소략하게 다루었는데 이 글은 그것을 국어교육적 입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확장한 것이다.

창(1998)도 이 설화와 관련된 다양한 텍스트와 논의를 소개한 뒤에 교과서 수록 변이형이 원래의 의도를 손상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운기(1996)과 박성규(1998)은 이 설화에 대한 기존 논의를 이어 개작의 문제점을 다시 다루면서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이외에 교과서에 실린 전래 동화를 포괄적으로 다룬 것으로는 홍순철(1996), 신정순(1992), 두옥신(2000), 임덕연(2001), 한정순(2009) 등이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문학 교육적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논의의 내용 또한 대체로 대동소이한 것이 사실이다. 반면 이 글은 언어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II. 텍스트 변형과 정전화

우리의 경우, 이 설화의 기원은 『삼국유사』의 ‘경문대왕 설화’에 있다. 이후 이 설화에서 파생된 이야기가 수없이 재생산되었고, 지금도 꾸준히 다시쓰여지고 있다. 여기서는 이 설화가 어떤 의도에서⁷⁾ 어떤 구

7) 근원 설화를 바탕으로 한 변이형 텍스트는 다시쓰는 작가의 의도나 목적에 맞게 재구성된다. 한 예를 들어본다. 『조선일보』 1933년 12월 19일자 부록 4면에 ‘임금님의 귀’라는 제목의 변이형이 있다. 이 다시쓰기의 의도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조금도 속임 업시 자기가 그런 말을 퍼트렸다고 정직하게 고백한즉’에 있다고 본다. 즉 교훈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동화의 속성에 맞춘 것이다. 진실 은혜를 위해서 이발사를 끊임없이 죽이는 원래적 문제가, 전혀 다른 주제에 의해 희석되는 구조이다.

“옛날에 한 임금님이 얘기가 업서 기도하시기를 옥톡기 갖흔 아들을 나케 해 쫓시사고 아엿습니다. 그럿자 정말 얘기를 나섯는데 참 어엿부나 이상하게도 귀가 톱기 귀엿습니다. 남들이 귀를 불가 하야 숨겨 기르시고 머리도 손수 썩겨 주시드니 아들이 장성하야 임금님 내외분이 다 도라가시고 보니 머리 썩겨 줄 사람을 대궐로 불러 드려 썩그시고는 곳 죽여버리고 하섯습니다. 그런데 박서방이라는 리발사는 임금님의 머리를 썩겨 드리고 잘 말슴을 하야 사러 나왔스나 임금님의 귀가 우스워서 그만 병이 들어 죽게

조로 변모하여 정전화되고 읽혀졌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삼국유사』에 나오는 ‘경문대왕’과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근원 설화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 『삼국유사』 권2, ‘경문대왕’

[1] 왕위에 오르자 왕의 귀가 갑자기 길어져서 나귀의 귀처럼 되었다. [2] 왕후와 궁인들은 모두 이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복두장(幞頭匠) 한 사람만은 이 일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평생 이 일을 남에게 말하지 않았다. [3] 그 사람은 죽을 때에 道林寺 대밭 속 아무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대를 보고 외쳤다. “우리 임금의 귀는 나귀 귀와 같다.” 그런 후로 바람이 불면 대밭에서 소리가 났다. ‘우리 임금의 귀는 나귀 귀와 같다.’ [4] 왕은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대를 베어버리고 그 대신 山茱萸 나무를 심었다. 그랬더니 바람이 불면 거기에서는 다만 ‘우리 임금의 귀는 길다.’고 하는 소리가 났다. (이민수 역(1983), 『삼국유사』, 136-137쪽, 을유문화사. 의미 단락 구분은 필자에 의한 것임.)

근원 설화 1)의 의미 단락에 따라 이야기 화소(話素)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근원 설화의 이야기 화소

- ① 왕의 귀가 갑자기 길어져 나귀의 귀처럼 됨.
- ② 복두장이만이 이 사실을 알았지만, 평생 다른 이에게 말하지 않았음.
- ③ 대나무 숲에서 진실을 외쳤고, 바람이 불면 ‘우리 임금의 귀는 나귀 귀와 같다.’라는 소리가 남.
- ④ 대나무 숲을 베어 버리고 산수유를 심었지만 바람이 불면 여전히 그 소리가 남.

땀은대 의사가 고쳐 주어 다시 살어나고 본즉 이번에는 임금님의 귀가 특기 귀를 달땀다는 소문이 퍼져 붓들려 갓습니다. 그러나 박사방은 조금도 속임 업시 자기(가) 그런 말을 퍼트렸다고 정직하게 고백한즉 임금님께서도 그제야 후회하고 박사방을 용서해 주섯답니다.”

1)과 2)에서 보듯이 근원 설화의 내용만 놓고 보면, 설화의 문제적 인물은 복두장이다. 임금님은 대나무숲을 산수유나무로 바꾸는 장면에만 등장한다. 복두장이 입장에서 이 설화를 읽으면, ‘숨어 있는 화소’ 하나가 찾아지는데, 그것은 ‘(진실을) 말 못하게 함’이다. 물론 텍스트 내에는 임금의 위협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복두장이 평생 말하지 않다가 죽을 때 대나무 숲에다가 진실을 고백한 것이나, 대부분의 변이형 텍스트들에는 임금의 위협이 나타나는 점을 볼 때, 이 텍스트의 기저에는 ‘말하지 못하게 함’이 설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언어 본질적 속성인 ‘말하기’ 즉 의사소통의 문제와 직결된다. 일반적으로 회자되어 온 이 설화의 주제는 ‘말하고 싶은 욕망’이다. 언어적 표출 욕구라 할 만한 이 주제는 그동안 꾸준히 말해진 것으로 이 설화의 기본 주제라 할 만하다. 그런데 이와 함께 ‘말 못하게 함’도 이 설화에서 읽힐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의 본질적 욕구인 말을 하고 싶은 욕망의 통제, 그것도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인간 삶에 흔히 있는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설화의 수많은 변이형이 전 세계에 걸쳐 실재함과 동시에 현재도 계속 다시쓰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말하기 곧 정상적인 의사소통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말 못하게 함’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이 설화를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제 교과서 설화의 기반이 되었다고 말해지는 또 다른 변이형을 들어 보기로 한다.

3) 충주군 이유면 두정리에 남아 있는 변형

“그러나 백성들은 흥으로 생각하지 않고, 백성의 말을 널리 들어서 좋은 정사를 하려고 그런 것이라 여기고 왕을 우러러보게 되었다. 그러자 왕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박성규 1998:18에서 재인용)

박성규(1998:18)에서는, 충주군 두정리의 설화에는 『삼국유사』의 근원 설화에 위 3)의 내용이 덧붙여져 있으며, 5, 6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

등학교 읽기 교과서에 실린 설화와 가장 닮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이 마지막 부분은 교과서에 실렸던 설화의 내용과 흡사하다. ‘백성의 말을 널리 들어서 좋은 정사를 하려고 그런 것이라 여기고’의 화소를 바탕으로 교과서 설화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5. 6차 교육과정기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읽기』 교과서에 실린 문제의 변이형을 가져와 근원 설화와 비교해 보기로 한다.

4)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읽기 2-1』 44-47, 교육부, 1995)

[1] 옛날 옛적에, 백성을 무척 사랑하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혼자서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내 귀가 왜 이래? 꼭 당나귀 귀 같구나!” 임금님은 머리를 빗겨 주고 관도 씌워 주는 신하를 일른 불렀습니다. “어서 이 귀를 감추어서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소문을 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신하는 임금님이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 같다는 말을 하고 싶어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병이 났습니다. ‘속 시원하게 말 좀 하였으면……’ 신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렇게 외치고 나니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병도 나았습니다.

[2]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람만 불면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얼마 안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같다는 소문이 나라 안에 널리 퍼졌습니다. 이 소문은 마침내 임금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몹시 화가 난 임금님은 대나무를 모조리 베어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도 대나무를 베어낸 자리에서는 여전히 소리가 났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은 무척 괴로워하다가 그만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훌륭한 의원도, 좋은 약도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3] 하루는 이 소문을 들은 시골 농부 한 사람이 임금님 앞에 엎드려 말하였습니다. “제 말씀을 들으시면 임금님의 병은 틀림없이 나오실 것입니다.” 임금님은 어서 말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같이 큰 것은 결코 흉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랑스러운 일이니, 귀를 감추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임금님께서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귀가 그렇게 커진 것입니다. 귀가 커야 백성들이 하는 말을 모두 귀담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래. 과연

네 말이 그럴듯하구나!” 농부의 이야기를 듣고 난 임금님은 아주 기뻐했습니다. 병도 씻은 듯이 다 나왔습니다. 임금님은 그 동안 감추었던 귀를 곧 바로 내놓고 농부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4] 그 뒤, 임금님은 백성들의 말을 더욱 귀담아들으며, 나라를 잘 다스리는 훌륭한 임금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단락 구분은 필자가 다시 한 것임.)

이 설화와 1)의 근원 설화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의미 단락 [3]과 [4]이다. 근원 설화에서는, 산수유나무를 새로 심었지만 여전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는 소리가 들렸다는 결말을 맺고 있는 데에 반해, 이 설화에서는 새로운 주인공을 등장시켜 설화의 내용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사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은 작가의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으로, 읽는 이의 주제 파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 변화는 주제의 전환을 의도한 것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원래적 주제에서 벗어나도록 은연중에 강요한다. 특히 3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훌륭한 임금’과 ‘귀가 커야 백성이 하는 모든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다’는⁸⁾ 서사는 전반부의 주제와는 달리 ‘훌륭한 임금’을 지향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텍스트 변형을 통한 주제의 전환이 바로 이 변이형이 교과서에 실리게 된 근거라고 여겨진다. 다시 말하면 정전화를 위해서 근원 설화의 구조를 변형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진실 은폐’와 이를 위한 ‘말 못하게 함’의 문제가 희석되면서 중심 주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만 것이다. 여러 앞선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렇게 된 데에는 ‘훌륭한 임금’ 만 들기라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⁹⁾

8) 백영후(1992:520-524)에서는 11개의 전래 동화집에 실린 경문왕 설화를 비교 하면서 개작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임금님의 귀가 큰 것은 백성들의 말을 귀담아 듣기 좋도록 한 하늘의 뜻’이라 해 놓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9) 개작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은 여러 논의에서 이루어졌다. 조희웅(1994:127)에서는 “연령적으로 거의 비판 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아동들에게 이처럼

Ⅲ. 텍스트 분석

이 설화가 5, 6차 교육과정기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다는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 텍스트를 읽고 무엇을 생각하고 느꼈을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텍스트를 통해서 교육되는 내용이 무엇일까 궁금했다. 만약 ‘백성을 무척 사랑하는’ 임금님이 백성의 말을 잘 들어서 ‘훌륭한’ 임금님이 되었다는 식으로만 읽힌다면 이 텍스트가 내포하고 있는 언어 본질적 주제를¹⁰⁾ 놓치는 것이라 판단된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므로 그렇게 읽혀야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언어 본질적 내용을 짚고, 그것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하려면 초등학교 2학년이 아니라 더 높은 학년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적인 생각이다.

여기서는 먼저 텍스트 4)에 나타나는 문제적 요소와, 5, 6차 교육과정기에 어떻게 가르쳐졌는지를 분석하여 이 설화가 내포하고 있는 언어 본질적 주제를 찾아보기로 한다.

원설화가 가진 의미를 왜곡 전달시키”는 것이나, “폭군일 수도 있는 특정 군왕을 미화하기 위하여” “원문에는 전혀 없는 대목까지도 창작 삽입하였다는 것은 ‘역사의 조작’이란 비난을 면키 어려운 것”이라며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 정운기(1996:37-42)에서도 “원래의 주제는 ‘비밀 유지의 불가능성’과 함께 ‘인간 표현 욕구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백성의 말을 귀담아 듣는 지도자의 훌륭함’으로 은연 중 변질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홍순철(1996:45-54)에서는 “민중의 관점에서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님이라는 지배자의 관점으로 바뀐” 것은 봉건적 가치관을 주입시키는 것이며, “고도의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조작”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였다. 김기창(1998:82)에서도 “주제가 원전에 비해 모호해졌고, 임금을 미화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하였다.

- 10) ‘언어 본질적 주제’라는 표현이 낯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글의 논지를 담을 만한 적당한 용어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대로 쓰기로 한다. ‘언어의 본질은 말하기이며, 바로 그 말하기와 관련된 주제’라는 의미이다.

1. 갈등의 구조와 해소

4)에 제시된 대로 이 설화는 크게 네 개의 의미 단락으로 구분된다. 근원 설화와 비교하면 [3]과 [4]가 추가된 것이다. 등장인물들의 갈등을 기준으로 이 텍스트의 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5) 텍스트의 갈등 구조

[1]	[2]	[3]	[4]
임금님 : 신하	임금님 : 대나무숲	임금님 - 농부	홀륭한 임금님
갈등의 지속		갈등의 해소	갈등의 부재

전체 텍스트의 주인공격인 임금님의 갈등은, 처음에 ‘신하’와 함께 생성되어 ‘대나무 숲’과의 대립으로 이어진다. 그러다가 [3]에서 농부의 등장으로 완전히 해소된다. 따라서 갈등 지속 여부로 보면 이 텍스트는 크게 [[1][2]]와 [3]으로 나뉜다.

이는 근원 설화의 갈등 구조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근원 설화에서는 임금님의 갈등이 끝까지 해소되지 않는다. [3]도 근원 설화라면 ‘임금님 : 산수유나무’의 갈등이 지속되는 단계이다. 결국 이 설화의 [3]과 [4]는 전형적인 해피엔딩을 위한 설정이다. ‘홀륭한 임금님’을 내세움으로써 모든 갈등이 해결되도록 만들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구조 변형으로 지배 이데올로기의 속내를 감추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갈등의 성격도 임금님과 신하가 서로 전혀 다르다. 임금님의 고민은 드러내기 싫은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감출까 하는 것이고, 신하의 갈등은 새로 알게 된 진실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것인가이다. 하나의 진실을 두고 정반대의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 갈등으로 인해 생성되는 주제의 하나가 바로 ‘진실 은폐’와 ‘말 못하게 함’이다.

갈등의 해소 역시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임금님은 [1]에서 적극적으로

로 ‘말을 통제’함으로써 갈등을 봉합한다. 해소가 아니라 감추는 것이다. 그 방법이 ‘말을 못하게 함’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참말’을 못하게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임금님의 갈등 봉합은 [2]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말하는 대나무’를 모두 베어 버리는 것이다. 봉합은 해소가 아닌 까닭에 임금님의 갈등은 [3]에 가서야 해소된다. 그러나 ‘진실을 말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음은 대나무를 베어 버리고 산수유나무를 심어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쳐지는 것으로 증명된다.

신화의 경우는 다르다. 말 못하는 갈등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소(?)된다.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을 통한 해소가 아니라 대나무 숲을 향한 ‘홀로 외침’ 곧 독백으로 끝이 난다. ‘홀로 외침’과 대나무 숲들의 메아리로 해소되는 듯이 나타나 있지만, 이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다. 신화의 고민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해결된 것처럼 보일 뿐이다.¹¹⁾

2. 문제적 인물

표면 구조상 이 텍스트에는 ‘임금님, 신하, 대나무 숲, 농부’가 등장한

11) 말하기, 의사소통, 진실의 전달 등에 대한 본질적 문제성은 인류에게 여전히 현재적이며, 이런 현재성은 ‘대나무 숲의 외침’조차도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다. 한 예로, 이제하의 소설 『임금님의 귀』의 한 부분을 들어본다. 시사만화가인 주인공이 그린 그림에 대한 서사인데, 만화의 주인공은 군납 부정 사건에 연루된 대령 셋과 장군이다.

“‘임금님의 귀’라는 타이틀의, 대령 셋이 죽림(竹林) 속에 나란히 서서 크게 입을 벌리고 들리지 않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림이다. 임금의 당나귀 귀를 발견한 이발사 하나가 몇 해 동안이나 그 사실을 말설 못 한 울분으로 병이 든 끝에, 대숲에 숨어 들어가 그 이변을 큰 소리로 알리고 죽는다 - 그런 설화에서 끌어온 만화였지만, 내 역량으로 그 설화의 클라이맥스를 알리기에는 어렵도 없었다. 바람은 그 뒤 설 새 없이 불어 대고 있었으나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는 아무 데서도 들려오지 않았다 … (131쪽) (『한국소설문학대계』 44, 125-151, 청아출판사 1993).

다. ‘대나무 숲’은 사람은 아니지만 상징성을 가지는 의미 단락 [2]의 핵심으로서 [3]의 첫머리에 제시된 ‘소문’을 상징한다. 아마도 초등학교 2학년들은, ‘임금님’을 중심인물로 상징하고 ‘임금님-농부’의 조화를 중심으로 읽을 가능성이 높다. ‘임금님’이 지닌 상징성이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까지 지속되는 것도 그러하거니와, 신하는 전반부에서 일찍 퇴장하기 때문이다. 문제적 인물의 핵심인 신하가 일찍 사라지는 구조로 변형된 것이야말로 이 설화가 교과서에 실리게 된 근거이자 지배 이데올로기의 숨은 의도일 수 있다.

언어 본질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앞부분([1], [2])에 초점이 놓이며, 그 주요 주제 중의 하나는 ‘말하기’, 곧 ‘참말’과 ‘할말’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¹²⁾ 따라서 신하가 문제적 인물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임금님은 계속 말하고 있는 데 반해, 신하는 말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말할 수 있는 사람’과 ‘말할 수 없는 사람’의 구분이야말로 비정상적인 의사소통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이 권력이 되는 상황이며 지배 이데올로기가 확대 재생산되고 개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지점이다. 아울러 사람과 사람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언어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작용하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문제적 인물인 신하는 [3]에 가서 ‘농부’로 전격 교체된다. 이점은 의미 단락 [3]의 성격을 규정한다. 문제적 인물이 소멸되고 해결사가 등장하는 것이다. 해피엔딩을 위한 뜬금없는 전개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해피엔딩이 대부분인 설화에서 결말 부분이 차지하는 공간적 효과는 지대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갈등 해소라는 기대 부응을 위한 결말 구조에도 불구하고 신하가 지녔던 문제성은 여전히 남는다.

12) 이상태(2010:183-192)에서는 ‘참말’, ‘정확한 말’, ‘바른말’, ‘할말’ 등을 바탕으로 국어교육에서의 ‘바르게 말하기의 체계’를 설정하였다.

3. 주제의 전환

이처럼 [1]과 [2]에서 찾아지는 주제는 ‘말하고 싶은 욕망’과 ‘말 못하게 함’이다. 특히 필자가 새로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후자이다. 곧 이 설화에는 ‘진실 은폐를 위한 언어 통제’의 상황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독백이야말로 이 설화가 원초적으로 문제 삼는 주제를 정확히 나타낸 표현이다.

그런데 II장의 말미에서 드러난 대로, 본래적 주제는 [3]에서 전환된다.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나귀 귀이니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농부의 말을 통해서 ‘훌륭한 임금의 조건’이 새로운 주제로 부각된다. 이에 따라 전반부에 제기되었던 주제는 그 의미가 점차 희석되고 만다. 결국 이렇게 되면 ‘말하기’ 문제, 곧 ‘참말 말하기’는 온데간데없이 된다. 이런 주제의 전환이야말로 교과서를 통해 관철하려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의도를 은밀하게 숨기는 장치라고 판단된다.

변이형의 텍스트 구조로 볼 때 임금님이라는 인물이 전체 주어(말하는 이)가 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지배 이데올로기의 의도대로 임금님 입장에서 텍스트가 읽힐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전체 이야기의 흐름상 문제적 인물은 임금님이 되고, 독자는 ‘훌륭한 임금님’을 중심 주제로 ‘읽게’ 된다. 실제로 이 텍스트를 읽은 학생들의 반응은 이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 6) 교과서 변이형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 (신정순 1992:46-47에서 인용)
말을 참다 못해도 또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 나는 임금님보다 더 큰 귀를 가지고 싶다. 나도 임금님이 되고 싶다. / 임금님 귀는 훌륭한 귀이다. 무슨 말이든 다 들을 수 있으니까 / 임금님처럼 누구나 사랑하겠다. / 남에게 놀림을 당하는 사람은 화가 나도 참고 견뎌야 하고, 남의 흉을 보아서도 안 되겠다. / 마음씨가 착해서 당나귀 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6)의 반응들을 보면 읽기의 초점이 모두 ‘마음씨 착한 임금님’에게 쏠려 있는데, 이는 주제 전환의 의도가 그대로 관철된 결과로서 이른바 전형적인 ‘지배 이데올로기의 은밀한 내면화’를 잘 보여준다.

4. 무엇을 읽게 할 것인가?

이제 이 설화가 실렸던 교과서와, 지도 이념이 제시된 교사용 지도서의 ‘단원 목표’와 ‘학습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5. 6차 교육과정기에 어떻게 가르쳐졌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단원 목표를 보면 그 성격이 언어의 본질 문제와는 사뭇 거리가 있으며, 5차와 6차 두 교육과정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7) ① 단원의 목표

- ㉠ 5차 : ○ 일이 일어난 까닭을 생각하며 글을 읽기
○ 나오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어울리게 글을 읽기
- ㉡ 6차 : 인물의 말과 행동에 어울리게 글 읽기

② 본시 학습 목표

- ㉠ 5차 : ○ 3차시 - 일이 일어난 까닭을 생각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 내용의 대강을 알 수 있다.
- 4차시 - 글을 읽고 일이 일어난 까닭을 알 수 있다.
- 글을 읽고 줄거리를 간추릴 수 있다.
- ㉡ 6차 : ○ 4차시 - 글을 읽고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오는 인물의 성격을 말할 수 있다.
- 5차시 - 나오는 인물의 말과 행동에 어울리게 글을 읽을 수 있다.

단원의 목표 ‘인물의 말과 행동에 어울리게 글 읽기’는 5차와 6차에 공통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때의 ‘읽기’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낭독’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리 내어 읽을 때 등장인물의 특징을 살펴 읽도록 지도하라는 것이다.

7)의 ①에서 보듯이 5차의 단원 목표에는 ‘일이 일어난 까닭의 파악’

이 설정되어 있지만, 6차에는 ‘인물의 말과 행동에 어울리게 읽기’만 제시되어 있다. 이런 점은 ‘본시 학습 목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5차는, 3차시에서 내용의 대강을 파악할 때나, 4차시에서 줄거리를 간추릴 때에도 ‘일이 일어난 까닭’을 지속적으로 고려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대신 6차는, ‘인물의 성격’이나 ‘인물의 말과 행동’의 특성을 파악하는 작업만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처럼 6차 교육과정에서 ‘일이 일어난 까닭’에 대한 탐구를 제외시킴으로써 언어 본질적 주제를 완전히 비껴 가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5차와 6차의 두 교육과정이 모두 의사소통상의 말하기를 문제 삼도록 학습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5차의 경우가 언어 본질적 주제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되어 있는 ‘학습 문제’ 역시 이 설화를 정전화한 의도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된다.¹³⁾ 아래 8)이 그것인데 실제로 단원의 목표나 본시 학습 목표와 연계된 학습 문제라기보다는 텍스트의 내용 파악을 위한 문제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5차와 6차 그리고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의 질문들이 일관성 없이 섞여 있기도 하다. (*는 교사용 지도서에만 나오는 학습 문제이며, ‘/’ 오른쪽은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답이다.)

8) ① 5차

- ㉠ 나오는 사람은 누구누구인가요? / 임금님, 신하, 시골 농부
- ㉡ 임금님은 거울 보다가 왜 깜짝 놀랐나요? / 귀가 당나귀같이 커져서
- ㉢ 신하는 왜 병이 났을까요? /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해서
 - * 신하는 왜 말을 하지 못했나? / 임금님이 소문을 내서는 안 된다고 시켰으므로
- ㉣ 신하가 대나무 숲으로 들어간 까닭은 무엇인가요?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소리치고 싶어서

13) 차혜영(2005:117)에서는 ‘익힘 문제’나 ‘공부할 문제’를 통해서도 이데올로기를 ‘복습’하고 ‘내면화’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처럼 지배 이데올로기는 교과서의 모든 구조를 통해서 관철된다.

- * 대나무를 베어 버리라고 명령한 까닭은 무엇인가? /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가 나서
- * 임금님은 왜 병이 났을까? / 귀가 당나귀같다고 소문이 퍼져서
- ㉓ 임금님은 누구의 어떤 말을 듣고 병이 나왔나요? / 농부가 임금님 귀가 커진 것은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함.
- ㉔ 임금님이 훌륭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요? / 백성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서
- ㉕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 일을 생각하며 줄거리를 말하여 봅시다.
- * 임금님이 농부에게 상을 준 까닭은 무엇인가? / 임금님의 고민을 없애 주어서, 큰 귀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 주어서, 백성을 다스리는 데 꼭 필요한 말을 해 주어서....
- ㉖ 이 이야기에서 가장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찾아 서로 말하여 봅시다.
- ② 6차
- ㉗ 임금님은 거울을 보다가 왜 깜짝 놀랐나요? / 귀가 당나귀 귀같이 커져서
- ㉘ 신하는 왜 병이 났나요?
* 신하가 병이 난 까닭을 알 수 있는 말은 무엇인가요? / 속 시원하게 말 좀 하였으면....
- ㉙ 신하는 왜 대나무 숲으로 갔나요?
* 신하가 대나무 숲에서 외친 말은 무엇인가요?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 ㉚ 임금님은 왜 병이 났나요? / 귀가 당나귀 귀 같다고 소문이 퍼져서
- ㉛ 임금님의 병은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나요?
* 임금님은 누구의 말을 듣고 병이 나왔나요? / 농부
- ㉜ 임금님이 더욱 훌륭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요? / 백성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서

정전화의 의도를 결정적으로 보여 주는 학습 문제는 두 가지이다. 곧 '임금님의 병이 나은 이유'와 '임금님이 훌륭하게 된 까닭'을 묻고 각각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백성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서'라고 대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질문은 5차와 6차에 다 제시되어 있다.

더불어 주목되는 학습 문제가 있다. '신하는 왜 병이 났을까?'와 '신

하는 왜 말을 하지 못했나?’인데 앞의 것은 5차와 6차 교과서에 다 나타나며, 뒤의 것은 5차 교사용 지도서에만 나온다. 교과서에는 없는 이 학습 문제는 6차에는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학습 문제와 ‘임금님이 소문을 내서는 안 된다고 시켰으므로’라는 정답이야말로 이 설화의 주제 가운데 하나인 ‘말 못하게 함’에 가장 접근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즉 지배 언어에 의한 ‘말의 통제’에 관한 물음과 답인 것이다.

5차와 6차 교육과정에 설정된 단위 목표와 이에 따른 학습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궁극적인 의도 역시 ‘훌륭한 임금 만들기’에 있다. 설화의 표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요소들을 제외하고는 언어 본질적 주제를 비껴가고 있는 것이다. 근원 설화의 기본 구조를 가져와 전반부에 설정하고 후반부를 지배 이데올로기에 맞게 변형시킨 의도가 단위 목표와 학습 문제를 통해서도 관철되고 있다. 거듭 말하거니와 개작의 결과가 정전화의 의도에 맞는 것이 아니라, 정전화를 염두에 두고 개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언어적 표현 욕구’라는 기본적인 주제 이외에, 이 설화에서 찾아지는 또 다른 주제는 ‘말 못하게 함’이라 하겠다. 이런 언어 본질적 주제들은, 인간에게 있어서 말하기란 어떤 것이며, 진정한 의사소통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연결된다. 이러한 의사소통상의 문제성은 인간 삶에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실제 말이 쓰이는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상존하는 문제이기도 하다.¹⁴⁾

이제 이 설화의 주제로 늘 말해 왔던 언어적 표현 욕구 즉 ‘말하고 싶은 욕망’ 이외에, 언어 본질적 측면 곧 의사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분석된 주제 몇 가지를 정리하면 아래 9)와 같다. 물론 이것이 이 설화의 핵심 주제로서 가장 중요하게 초점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14) 이은규(2011:60-68)에서는 빠를의 특징을 8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 이 설화는, ‘말값은 상징제가 결정한다.’, ‘지배 언어와 이데올로기를 생성한다.’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다만 아래의 주제들 각각이 이 설화에서 찾을 수 있는 여러 주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하며, 언어의 본질과 관련하여 국어교육의 영역에서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9) ① 진실 은폐와 이를 위한 말 못하게 함¹⁵⁾
- ②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참말 말하기의 실현
- ③ 텍스트 변형을 통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관철
- ④ 언어의 본질과 인간 삶의 관계

IV. 재정전화와 지도 방향

여기서는 이 설화가 언어의 본질을 학습할 수 있는 읽기 텍스트로 재정전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밝히고, 현행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을 따져 본 뒤에, 재정전화될 때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어 교수-학습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재정전화의 필요성

먼저 재정전화를 말하기 위한 전제로, 읽기 행위가 가지는 최종 목표를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10) 읽기의 궁극적인 목표 : 텍스트를 통해서 '삶을 읽는 것'

15) 이를 '지배 언어에 의한 언어 지배'라 할 만하다. 필자는, 한국 사회도 전통적으로 이러한 언어 통제가 지속적으로 있어 온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말 못하게 하는 기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현재성을 띠면서 끊임없이 작동되고 있다고 본다.(이은규 2011:67-68 참조).

단순히 읽이나 지식 또는 읽는 행위의 즐거움 자체를 추구하는 읽기도 가능하겠지만, 그런 읽기도 결과적으로는 읽는 사람의 삶에 연결된다. 따라서 읽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을 읽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삶과 유리되지 않는 읽기가 되려면, 단순히 텍스트가 보여주는 표면적 의미만 읽는 것이 아니라 심층에 숨겨진 필자의 의도를 추적해서 찾아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자신만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도록 해야 한다. 곧 ‘비판적 읽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삶을 읽는 수단은 텍스트이다. 그것이 문자 언어로 구성된 것이든 아니면 그 밖의 것이든 간에 텍스트가 없이는 읽기가 불가능하다. 교육에서도 그러한데 텍스트가 가르쳐야 할 내용을 전제·담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0)을 위해서는 삶의 단면들을 읽을 수 있는 텍스트라야 한다. 텍스트를 고르는 일이 중요한 부면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텍스트에 주목할 때 다음 두 가지가 반드시 그리고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11) ① ‘어떤 글’을 읽힐 것인가?
- ② 그 어떤 글에서 ‘무엇’을 읽힐 것인가?

‘읽는 힘을 기른다.’는 목표를 앞세우고 기능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면 흔히 11)이 간과되기 쉽다. 어떤 글을 통해서 무엇을 읽힐 것인가라는 관점은 얼핏 전통적인 읽기 관념으로 치부될 수도 있다. 하지만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삶의 어려움을 헤쳐 나갈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읽기라면 텍스트 소위 읽기 제재에 대해 깊이 천착하고 고민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단순히 ‘좋은 글’이라는 추상적 관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솔한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글을 선정하고 그 글을 통해서 ‘무엇을 읽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읽기 제재론’이 필요한 것이다.¹⁶⁾

16) 교과서에 실리는 글감들의 정전화 과정을 따져 묻는 일도 이런 관점의 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설화는 언어의 본질적인 부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적절한 읽기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이 설화가 내포하고 있는 언어 본질적 주제야말로, 말의 본질과 기능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에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말과 삶을 연결지어 고민하도록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소의 하나인 말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조직하고 지배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인 것이다. 아울러 말하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떤 말하기를 연습해야 하는지, 참말과 바른말 하기가 왜 중요한지 등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제들을 실제 삶에 비추어 따져볼 수 있는 텍스트이다.

3장에서 이 설화가 변형되고 정전화됨으로써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만을 고려하면 이 설화가 7차 교육과정 기부터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것이 당연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변이형이 이데올로기적 문제점을 내포한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근원 설화가 가지는 교육적 가치를 도드라지게 해 준다. 곧 근원 설화가 가지는 언어 본질적 주제와, 변이형이 가지는 문제점으로서의 주제가 모두 소중한 교육적 가치를 가진다는 논리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언어 본질적 주제를 탐색할 수 있는 텍스트로서 이 설화와 근원 설화의 기능은 자못 크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설화는 근원 설화와 함께 재정전화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2. 교육과정과의 관련성

근원 설화와 이 설화를 재정전화한다고 할 때 2009 교육과정의 어느 부분과 연결지를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의 내용 가운데 이 설화 및 이 글의 의도와 관련되는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12) 관련되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 ① 초(1-2학년군)-읽기-(5) 글의 내용을 자신이 겪은 일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 ② 초(3-4학년군)-읽기-(2) 글쓴이의 마음이나 인물의 마음을 짐작 하며 글을 읽는다.
- ③ 초(5-6학년군)-읽기-(5)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를 파악한다.
- ④ 중(1-3학년군)-읽기-(7) 동일한 대상을 다룬 서로 다른 글을 읽고 관점과 내용의 차이를 비교한다.
- ⑤ 중(1-3학년군)-읽기-(9) 자신의 삶과 관련지으며 글의 의미를 해석하고 독자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 ⑥ 중(1-3학년군)-문법-(1) 언어의 본질과 기능을 이해한다.
- ⑦ 고(독서와 문법)-언어의 본질-(3)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탐구하고 이해한다.

①-⑤는 공통 교육과정의 ‘읽기’ 영역에서, ⑥은 ‘문법’ 영역에서 그리고 ⑦은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에서 가려뽑은 것이다.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읽기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보는 읽기와 관련된 성취 기준 들만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①과 ②는 제외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읽기는 글의 표층 의미를 충실하게 이해하는 데에 무게중심이 놓이기 때문이다. 성취 기준의 설명을 보더라도 ①은 주로 일상생활의 경험이 담긴 일기, 생활문, 편지 등을 다루도록 되어 있고 심층 의미 구조를 파악하는 단계에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있다. ②의 ‘글쓴이의 마음’도 감정적 상태를 뜻한다.

③-⑤는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읽기가 전제되어야 성취 가능한 기준들이다. 특히 ③은 심층적 의미 구조 곧 글쓴이의 의도를, ⑤는 ‘독자의 재해석’을 강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④는 이 설화의 교수 방법과 관련되는데 이를 적용하여 이 설화와 근원 설화를 비교하면 글쓴이의 의도와 개작의 문제점까지 파악할 수 있다.

⑥과 ⑦은 ‘언어의 본질’ 문제를 다룬 성취 기준인데 ⑥은 공통 교육과정에서 유일하게 제시된 것이고, ⑦은 선택 교육과정인 ‘독서와 문법’

의 내용 요소의 하나인 '언어의 본질'에 제시된 성취 기준이다. ⑥의 성취 기준에 대한 교육과정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13) 언어의 본질과 기능을 이해한다.

언어의 본질과 기능을 깊이 이해하면 ① 언어를 단순한 도구나 매체로 보지 않고 학습자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바라보는 안목을 가질 수 있다. ② 언어의 본질에서는 자의성, 규칙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 등을 다루고, 언어의 기능에서는 언어의 지시적·정보적·친교적·정서적·명령적 기능 등을 다룬다.

13)의 밑줄 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어의 본질에 대해 단순히 지식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연관지어 세계를 관찰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언어의 본질적 탐구의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뒷부분 ②는, 주로 언어의 본질 가운데 한 측면인 랑그적 지식만을 제시함으로써 '삶과 관련지어 바라보는 안목'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 사실 교육과정에 명시된 언어 관련 요소들은 이처럼 대부분 랑그적 지식에 관한 내용들이다. 실제 언어 자료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공통 교육과정에 담기지 않은 점은 문제라 여겨진다.

이런 측면에서 12) ⑦은 어느 정도 실제 언어 자료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한계는 있다. 교육과정의 설명을 살펴보자.

14)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탐구하고 이해한다.

① 언어는 인간과 사회를 이어 주는 매개체라는 인식 속에서 문화는 언어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는 현상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사고와 언어의 상호 영향 관계, 언어와 사회의 약속 관계, 문화와 언어의 표상 관계를 탐구하고 이해하도록 한다. ② 언어가 갖는 사회와 문화의 관계는 각각 언어의 사회성과 역사성 차원에서도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이러한 언어의 본질은 실제 언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이 설화와 관련하여 14)에서 주목할 부분은 '언어는 인간과 사회를

이어 주는 매개체’라는 부분이다. 사람과 공동체를 이어주는 언어가 어떤 양상으로 실현되고 문화 형성에는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탐구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런 면은 이 설화의 언어 본질적 주제 의식과도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14)의 성취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뒷부분에서는 ②와 같은 랑그적 지식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14)의 성취 기준은 ③의 ‘실제 언어 자료’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하다. 실제 언어 자료란 바로 빠를 차원의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언어의 본질을 제대로 다루려면, 자신의 말과 경험의 상호 작용 나아가 실제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집단의식은 물론 인간과 사회의 정치적 역학 관계 등에 대한 탐구가 국어교육의 장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처럼 언어의 본질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들이 언어 지식적인 면에 치우쳐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 언어 자료를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이 설화는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읽기 글감으로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도 부합하며, 아울러 교육과정의 내용이 가지는 언어 지식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텍스트의 하나라는 점에서 재정전화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12)의 성취 기준으로 볼 때 이 설화는 적어도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 단계 이상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교수-학습 방법

이 설화를 재정전화하여 국어 교과서에 다시 신는다고 할 때, 어떤 교수-학습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들을 고려하여 주제 중심 읽기를 한다면 대략 다음과 같은 교수-학습 방법이 수업 과정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15)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수-학습 방법

- ① 근원 설화에서 추출 가능한 주제를 찾고 그 적정성 따져보기
- ② 근원 설화에서 의사소통과 관련된 주제 찾기
- ③ 자신의 경험에서 말하기가 문제화된 상황 정리해 보기
- ④ 근원 설화와 변이형을 비교하여 차이점과 문제점 분석하기
- ⑤ 자신의 삶의 경험을 기초로 근원 설화를 다시쓰기

①은, 학생들이 설화 텍스트를 읽고 자기 나름대로 주제를 찾아 정리해 보게 하는 것으로, 이는 모든 텍스트를 읽은 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하나의 주제로만 편향되지 않도록 무한하게 열어 두어야 하며,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내놓은 다양한 주제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상하위 개념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②는, 이 설화에서 언어의 본질과 관련된 주제를 찾도록 유도하는 과정이다. 사실 이 글에서 말하는 ‘말 못하게 함’과 같은 의사소통과 관련된 주제는 학생들이 쉽게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대등하고 정상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그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권력’과 ‘지배 이데올로기’ 문제 등은 어려운 주제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 과정은, ①의 결과를 거른 것과, ③의 과제를 통해서 그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다.

③은, 실제 학생 자신의 삶에서 말하기와 관련하여 경험한 부조리한 사건을 재구하여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분석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한 상황이, 어떤 일 때문이었는지, 그 일과 관련된 사람들은 누구이며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일이 일어난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부조리한 상황의 합리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②의 과제를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는 과정으로서, 말하기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 인식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④는, 근원 설화와 이 설화를 함께 제시하여 비교 분석하여 구조상의 차이를 확인하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문제점을 생각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텍스트 구조를 분석하는 기초적인 훈련인 동시에, 이른바 전래 설화의 개작이 가져오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다.¹⁷⁾

⑤는, ‘말하기’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찾아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설화를 써 보게 하는 것이다. 근원 설화의 ‘현재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무한한 다시쓰기의 가능성을 열어두어 다양하게 재구성해 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곧 학생 스스로의 삶의 경험과 상상력을 통해서 이야기 구조를 완성하도록 개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읽기 과정에서 의미를 재구성한 뒤에, 자기 경험을 소재로 새로운 텍스트를 생산하게 함으로써 삶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15)의 교수-학습 과정에는 ‘비판적 읽기’나 ‘사회적 실천 행위로서의 읽기’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비판적 읽기를¹⁸⁾ 단순히 말하면,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읽기’로 정의할 수 있다. 텍스트를 조직하고 있는 문자적 의미 구조 즉 표층적 의미만을 읽지 않고 심층의 의미 구조까지 파악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실천 행위로서의 읽기에 대해서는 신명선(2002)에서 논의된 바가 있는데 그 개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7) 이 때 유의해야 할 것은 텍스트의 비교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박수자(1994:153)의 지적대로 읽기 지도는 “텍스트의 구조를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적절히 생성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18) 읽는 주체의 태도 영역까지 관련지어 본다면 비판적 읽기는 ‘반성적 독서’에 가깝다. 비판적 읽기의 개념과 이론 전개에 대해서는 김혜정(2001, 2), (2002) 등 참조.

16) 사회적 실천 행위로서의 읽기 (신명선 2002:241)

‘읽기’는 텍스트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주제)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① 주제 및 텍스트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 문화적 현상에 대한 판단과 ② 사회 문화적 규칙 등을 읽는 행위를 포함한다.

16)에 따르면 사회적 실천 행위로서의 읽기는 결국 텍스트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적 의미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포함한 사회를 다시 읽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읽기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의미와 규칙을 스스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¹⁹⁾ 결국 사회적 실천 행위로서의 읽기 개념에 입각한다면 이 설화의 학습은, 16)의 관점에서 15)의 작업들을 수행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말하기와 관련하여 자신을 ‘할 말을 하는 주체’로 다시 재정립하도록 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V. 마무리

지금까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설화가 가지는 읽기 텍스트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언어 본질적 측면에서 파악해 보았다. 특히 이 설화가 말하기, 곧 의사소통과 인간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규명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는다.

첫째, 정전화되었던 설화는, 근원 설화와는 전혀 다른 구조로 변형됨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주제에서 벗어남은 물론, 지배 이데올로기를 관

19) 신명선(2002:241-242)에서는 독자의 주체성과 관련하여 “사회적 실천 행위의 주체로서의 독자는 생산적 독자로서,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생성해 낼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주체”라 지적하고 있다.

철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런 점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단원의 목표나 학습 문제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둘째, 근원 설화는 언어의 본질을 탐구하기에 적합한 읽기 텍스트이다. 특히 실제 언어활동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문제성을 잘 보여주는 읽기 글감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현행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의 언어 본질 관련 항목과도 연계될 수 있는 읽기 글감이다.

셋째, 근원 설화에서 찾을 수 있는 여러 주제 가운데 언어의 본질과 관련된 것으로는 ‘진실 은폐’와 ‘말 못하게 함’ 그리고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참말 말하기’ 등이 파악된다. 아울러 말과 지배 이데올로기의 관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언어의 본질과 인간 삶의 관계 등도 함께 읽힐 만한 주제로 판단된다.

넷째, 이 설화는, 학습자로 하여금 언어의 본질과 관련한 인간 삶의 단면을 읽을 수 있는 텍스트로서 재정전화되어 교수-학습될 만한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 특히 ‘비판적 읽기’와 ‘사회적 실천 행위로서의 읽기’ 이론에 입각하여 이 설화의 주제와 개작의 의도 찾기, 의사소통 관련 경험을 찾아 정리하기, 텍스트 다시쓰기 등의 방법을 적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앞으로 세밀한 지도 방안의 탐색과 언어 관련 텍스트의 정전화에 대한 분석이 더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읽기(reading comprehension), 언어비평(linguistic criticism), 지배이데올로기(dominant ideology), 빠를(parole), 정전(canon),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설화(narrative tale Donkey Eared King), 진실 은폐(conceal the truth), 언어 통제(control the language)

참고문헌

- 교육부(1995), 『국민학교 교사용 지도서』,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1995), 『국민학교 국어 읽기 2-1』, 한국교육개발원.
- 문교부(1990), 『국민학교 교사용지도서』, 한국교육개발원.
- 문교부(1990), 『국민학교 국어 읽기 2-1』, 한국교육개발원.
- 강진호 외(2007), 『국어 교과서와 국가 이데올로기』, 글누림.
- 권이은(2011), 「비판적 읽기의 범주 설정 및 내용 체계화 연구」, 『독서연구』 26, 한국독서학회, 355-382쪽.
- 김기창(1998),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설화고」, 『진리논단』 2, 천안대, 57-85쪽.
- 김영수(2009), 「경문대왕 ‘驢耳說話’의 재해석」, 『동아시아고대학』 20, 동아시아고대학회, 231-273쪽.
- 김지홍 역(2011), 『언어와 권력』, 경진. (Fairclough, N.(2001), *Language and Power*, 개정판)
- 김혜정(2001ㄱ), 「비판적 읽기의 개념과 성격」, 『국어교육』 105, 한국국어교육연구회, 59-88쪽.
- 김혜정(2001ㄴ), 「비판적 읽기를 위한 텍스트 분석 시론」, 『텍스트언어학』 1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73-105쪽.
- 김혜정(2002), 「텍스트 이해의 과정과 전략에 관한 연구: ‘비판적 읽기’ 이론 정립을 위한 학제적 접근」, 서울대 국어교육과 박사학위논문.
- 두옥신(2000), 「동화의 교재 수용 양상 연구 :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수록분을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성규(1998),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설화의 전승양상과 교재로서의 지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수자(1992), 「읽기교재에 수록될 ‘글(text)’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1, 국어교육학회, 125-144쪽.
- 박수자(1993), 「읽기 교재 구성 방안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3-1, 국어교육학회, 79-105쪽.

- 박수자(1994), 「독해의 본질과 읽기 교재의 관계」, 『국어교육학연구』 4-1, 국어교육학회, 143-174쪽.
- 박수자(1995), 「국어과 읽기 지도 내용과 독해 전략」, 『어문학교육』 17, 한국어문교육학회, 137-149.
- 박용찬(2005), 「문학교과서와 정전의 문제」, 『국어교육연구』 38, 국어교육학회, 49-70쪽.
- 백영후(1992), 「전래동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의 교과서 수록 및 지도 방안」, 『봉죽헌 박봉배선생 정년 기념 논총집 - 국어과교육학의 이론과 방법 연구』, 교학사, 515-531쪽.
- 신명선(2002), 「사회적 실천 행위로서의 읽기 방법의 설계에 대한 시고」, 『국어교육학연구』 14, 국어교육학회, 235-264쪽.
- 신정순(1992), 「아동의 전래동화 수용 양상과 그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치열(2005), 「『삼국유사』 소재 설화의 서사적 계승 연구 : 경문왕 설화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39, 국어국문학회, 301-335쪽.
- 이문규(2001), 「국어지식 교육의 성격과 방향」, 『어문학교육』 23, 한국어문교육학회, 259-282쪽.
- 이문규(2011), 「2011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문법 교육」, 『국어교육연구』 50, 국어교육학회, 295-324쪽.
- 이민수 역(1983),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 이상태(1993), 『국어교육의 길잡이』, 한신문화사.
- 이상태(2010), 『사고력 함양을 위한 국어교육 설계』, 박이정.
- 이은규(2011), 「언어비평, 그 가능성과 필요성」, 『어문학』 114, 한국어문학회, 55-85쪽.
- 임덕연(2001), 「초등학교 국어 읽기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 연구 - 원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소영(2004), 「한국전래동화에 나타난 설화 수용 양상 연구」, 조선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운기(1996),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의 구조와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희웅(1994),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설화」, 『고전문학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가』(이상익 외), 집문당.
- 차혜영(2005), 「국어 교과서와 지배 이데올로기 - 1차~4차 교육과정기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를 대상으로」, 『상허학보』 15, 상허학회, 99-128쪽.
- 차혜영(2005), 「한국 현대소설의 정전화 과정 연구 -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와 지배 이데올로기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18, 돈암어문학회, 45-89쪽.
- 최운식·김기창(1998), 『전래 동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최운식·김기창(1988) 『전래동화교육론』 집문당.)
- 한정순(2009), 「교과서 동화 제재의 개작 양상 연구 : 초등학교 6학년 '읽기' 중심」, 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순철(1996), 「전래동화에 나타난 봉건적 가치관 연구 - 초등학교 어린이 대상 작품을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재성 외 역(1994), 『언어와 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The Korean Educational Implication of the Narrative Tale *Donkey Eared King*

Lee, Eun-kyu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meaning and the function of the narrative tale *Donkey Eared King* as a reading text in linguistic point of view. This paper especially focused on this tale with linguistic criticism, and tried to reveal that the text is related to the essence of language. The results are following.

First, the canonized textbook had been modified dramatically different structure from the source tale. So, it began to depart from the original's main theme and also perform the function of accomplishment of dominant ideology. These facts are revealed not only in the text, but also the objective of chapter and practice problems in textbook.

Second, from the linguistic point of view, the source tale is a valuable as a reading text which contains the essence of language, especially the features of parole. And the text can be connected to the language related achievement standards of present curriculum.

Third, the main theme of source tale is in speech problem, which are concealing the truth, controlling the language, and communication problem etc. Especially, this tale shows that the control of language by dominant language is universal phenomena.

Fourth, this narrative tale has the considerable value which the learner can read a cross section of a human life in connection with the essence

of language by re-canonization. Especially, the application of some methods, such as finding linguistic theme and the intention of remake, organizing own's experiences related to communication, and rewriting the text, will be helpful.

From now on, it is necessary to search and describe the detailed teaching method, and also to broadly analyze the canonization of the text related to language.

이은규

소속: 대구가톨릭대학교 국어교육과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전화: 053-850-3120

전자우편: malhim@hanmail.net

이 논문은 2014년 5월 10일 투고 완료되어

2014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4년 6월 23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되었음.